

# 한화오션-HD현대중, 전면전 양상 “임원차원 개입” vs “억지 주장일뿐”

## KDDX 군사기밀 유출 논란

한화오션, 엄정한 수사 촉구  
“국방사업 신뢰가 걸린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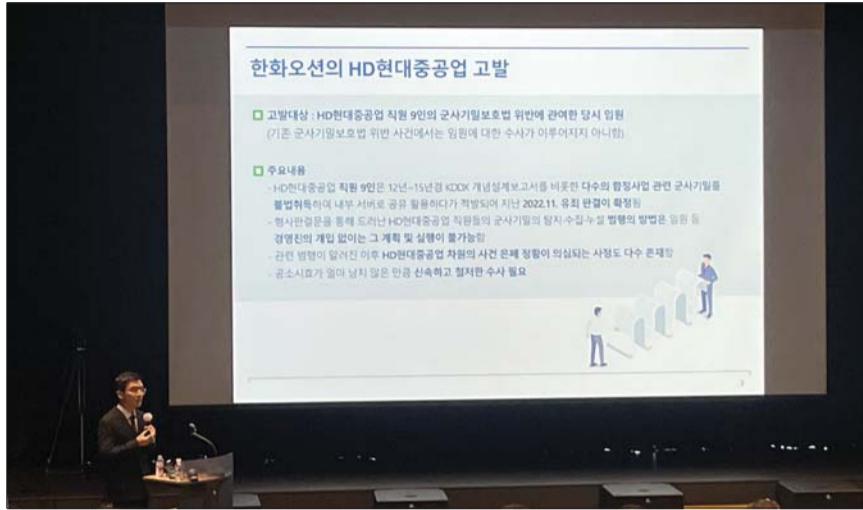
### HD현대중 “이미 종결된 사안”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군사기밀 유출 논란에 대해 해당 임원의 개입을 주장하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기밀 유출을 한 업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도 실체를 밝히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화오션은 5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입장 설명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 고발 배경에 대해 “사전에 임원과 고위직 간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군사기밀 열람을 위한 시도 자체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재 라인만 보더라도 당연히 임원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가 발표를 맡고, 정원 울촌 변호사와 배선태 한화오션 특수선영업담당 수석부장이 배석했다.

한화오션은 이날 자체적으로 확보한 ▲판결문 ▲공무원 형사재판 증거목록 ▲공무원 형사사건기록 등을 공개했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서는 KDDX 개념 설계도 유출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 임원들의 개입이 불가했다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해 비인가 서버에 저장하는 심각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방위산업의 정의와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이날 경쟁업체 간 이해관계 문제가 아닌 함정 관련 국방사업의 신뢰가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서 고발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분

명히 했다. 이와 관련 HD현대중공업은 “이해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임원 개입 여부 등 한화오션이 문제 제기한 사안은 이미 법원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오늘 설명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수사기록과 판결문을 일방적으로 짜깁기하여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개발 및 수출확대를 통한 K-방산 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항공업 기본 충실”... 대한항공, 안전문화 확립 힘쓴다

조원태 회장, 고객중심·안전운항 강조  
세이프티 데이·해저드 리포트 등 활동

“최상 서비스 제공하는 가장 안전한 항공사 돼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2024년은 코로나 위기가 완전히 끝나고 항공업계에 변화와 혁신이 싹트는 심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안전 운항과 고객 중심 서비스라는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조 회장이 ‘안전’을 강조한 것은 항공기 이용 승객이 늘어나면서 시장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지만 안전은 고객이 항공사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올해 글로벌 항공사가 사상 최대 규모인 47억명의 승객을 운송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조 회장이 내건 핵심 가치인 절대적인 안전 운항을 위해 다양한 고객 서비스와 제도 운영, 기단 현대화, 임직원 교육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전사적 차원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3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제1회 ‘세이프티 데이(Safety Day)’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매년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세이프티 데이’로 지정했다. 대한항공의 안전문화는 경영진과 임직원이 함께 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4일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창립 55주년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날 조 회장은 고객·안전 중심 서비스를 강조했다. /대한항공

들어가며, 항공안전 및 산업안전보건 담당자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 문화 제도도 활발하다. 대표적으로 사내 자율보고제도인 ‘해저드 리포트’가 있다. 해저드 리포트는 임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다.

예컨대 공항 또는 항공기 내외에 항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장애물 또는 위험물 발견 시 해저드 리포트를 작성 후 보고한다. 이를 통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후 우수 보고서를 선정해 월 1회 시상식을 개최하는 등 안전 문화를 고취하는 SMS Excellence 포상제도도 병행하고 있다.

안전운항을 위한 기단 현대화에도

적극적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에어버스의 A321neo 항공기 20대 추가 주문 계약을 체결해 2030년까지 총 50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잉의 B787-9 10대, B787-10 20대, B737-830대 등 총 110대의 신형기 도입에 나선다. 또 A330, 보잉777-200ER 등 경년기는 순차 퇴역시켜 보유 항공기 현대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 대한항공은 더욱 안전한 기내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대한항공은 1월 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륙 전 기내에서 상영되는 ‘기내 안전 비디오’를 새롭게 선보였다. 해당 영상에서는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을 한 ‘버추얼 휴먼(가상인간)’ 리나가 휴대 수하물 보관, 좌석벨트 착용법 등 기내 안전 수칙을 가상 공간에서 사실감있게 보여준다. 기내 안전 수칙을 보다 쉽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

대한항공은 세계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2005년 국내 항공사 최초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개발한 민간 항공사 대상 안전 심사(Audit) 프로그램인 IOSA(IATA Operational Safety Audit) 인증을 획득했다.

/양성운 기자



## 포스코인터내셔널 합병 2년차

# 영업이익 1조 시대 ‘활짝’ 그룹 핵심 계열사 급부상

에너지·철강 등 주요사업 투자 확대  
이계인 사장 ‘플랫폼 기업’ 전환 속도

합병 2년차를 맞이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철강 업황 침체로 인한 포스코 그룹의 부진을 메워주는 핵심 계열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계인 신임 사장을 중심으로 에너지·철강·식량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거침없는 투자를 이어가는 등 ‘글로벌 확장’을 통한 종합사업회사로 거듭나고 있다. 기존 주력 사업과 신사업의 촘촘히 엮는 경영을 펼치며 회사 성장을 견인할 동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연간 매출 33조 1328억원, 영업이익 1조 1631억원 실적을 기록했다. 창사 이래 최초로 영업이익 1조(兆) 시대를 공식화하며 합병의 시너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는 그룹 전체 영업이익(3조5000억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합병 2기를 맞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글로벌 구동모터코아 생산기지 확장에 속도를 낸다. 이계인 신임 사장이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이끌게 되면서 모빌리티와 함께 에너지·철강·식량 등 주요 부문 융합과 확장을 통해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2월 23일 이사회에서 구동모터코아 폴란드 신공장장과 멕시코 제2공장 건설을 승인했다. 이로써 포항·천안 등 국내를 포함해 멕시코, 폴란드, 중국, 인도 등 5개국에 걸친 구동모터코아 글로벌 생산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됐다. 구동모터코아는 전기차 핵심 부품으로 통한다. 폴란드 남서부 브제크에 들어서는 공장은 구동모터코아 사업의 유럽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브제크는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유럽 내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생산기지와 인접해 있어 현지 조달에 유리하다. 10만㎡의 부지에 세워질 신공장은 올해 6월 착공해 2025년 5월 완공할 계획이다. 생산계획에 따라 규모를 확대해 2030년에는 연 120만대 구동모터코아 생산체제를 갖추게 된다.

멕시코 2공장은 지난해 10월 라모스 라모스 아리스페에 준공한 1공장 인근에 건설된다. 올해 5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3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멕시코 2공장이 준공되면 2030년까지 1공장과



포스코인터내셔널 본사 전경 (원형사진) 이계인 사장

2공장 합산 연 250만대 생산체제가 완성된다.

특히 멕시코 2공장은 지난해 9월 수주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구동모터코아 272만대 공급과 북미 고객사의 현지생산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올해 에너지사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해 사업간 균형을 통한 성장도 추진하고 있다. 업스트림 영역에서는 2025년을 목표로 호주 세넥스에너지의 3배 증산 체제(20→60PJ/년)를 구축해 나간다. 이미 현지 8개 고객사와 총 150PJ 규모의 증산가스 판매계약을 체결했다.

에너지의 수송을 담당하는 미드스트림에서는 20만 kl 용량의 광양 6호 탱크 증설을 올해 마무리하고, 총 40만 kl 규모의 7, 8호기 탱크도 2026년 준공 목표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더욱 힘을 싣는다. 신안에서 육상풍력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을 대표해 해상풍력 중심 사업 개발을 본격화하는 원년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서해권·서남권·동남권에서 총 2.0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권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이계인 사장은 “회사의 미래 지향점은 이종사업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플랫폼 기업”이라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을 통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시켜 나간다”라는 계획을 설명하고 임직원의 동참을 촉구했다.

/양성운 기자



# 쿠루,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사업 본격화

LG에너지솔루션 안전진단 기술 활용

LG에너지솔루션 사내 독립기업 ‘쿠루(KooRoo)’가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

쿠루는 전기 이륜차 BSS(Battery Swapping Station·배터리 교환스테이션) 사업을 본격화 한다고 5일 밝혔다.

쿠루는 전기 이륜차의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는 대신 완충된 배터리로 간편하게 교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안전진단 기술을 활용해 쿠루의 BSS를 실시간관리하며 사용자들의 더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을 돕는다. /서현정 기자